

가정에서 시온을 보다

-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 정인호 형제 가족 -

정인호 형제의 인생은 독신 시절에 들은 종교 교육원 수업으로 바뀌게 되었다. ‘승영의 고리’에 대해 공부를 하던 중 선교 사업 후 성전 결혼, 그 다음이 학업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정 형제는 인생의 우선순위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얼마 후 정인호 형제가 내린 결론은 BYU 하와이로의 유학이었다. 물론 선교 사업과 군복무를 마친 후였다.

정인호 형제는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1992년 유학길에 올랐다. 모든 것이 낯설고 힘들었지만 주님을 믿는 신앙과 특유의 낙천적인 성격으로 유학 생활에 잘 적응해 나갔다. 2년 후 한국으로 돌아온 정 형제는 아내인 이화선 자매를 만나 주님의 성약 안에서 영원한 결혼을 했다. 그리고 또 다시 미국으로 떠났다. 가난한 유학생의 신분은 바뀐 것이 없었지만 이번에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였고, 그래서 정인호 형제는 언제나 행복했다. 두 사람은 BYU-하와이에서 각자의 공부에 매진했다. ‘우림’과 ‘두림’이라는 이름의 아들 둘도 낳았다. 두 아들은 ‘우림과 둠땀’에서 따온 그 이름처럼 세상 속에 숨어 있던 행복을 정인호 형제 부부에게 ‘해석’해 주었다.

졸업할 즈음이 되었을 때 정인호 형제와 이화선 자매는 공부를 계속할 생각이었다. 하지만 학교에서 늘 배웠던 원리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그것은 바로 ‘본국으로 돌아가 봉사하라’는 가르침이었다. 결국 정인호 형제 가족은 한국으로

돌아왔다. 학업을 뒤로한 채 돌아온 한국에는 남아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었다. 그러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준 교회와의 약속을 지키므로써 축복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열정만 있다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믿음만으로도 네 식구는 행복했다. 한국으로 온 정인호 형제 가족에게는 축복이 잇따랐다. 작지만 아름다운 도시인 김해에 삶의 터전을 마련할 수 있었고, 그 사이에 딸인 ‘다희’가 더해져서 정인호 형제 가족은 다섯이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직장도 구하게 되었다. “배운 것이 있고, 졸업장이 있고,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었”기에 일할 곳을 찾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얼마 후에는 사업을 시작했다. 사업 또한 자리를 잡는데 큰 어려움 없이 날로 번창했다. 이상하리만치 순조로웠던 귀국 후의 생활은, 사실 복음을 우선으로 하는 정인호 형제 가족의 신앙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긍정적이고 신실한 태도 때문이기도 했다.

현재 정인호 형제는 부산 스테이크 금정 와드에서 신앙생활을 하며 자그마한 학원을 운영하고 있다. 스테이크 청남 회장과 와드 선교 책임자로 봉사하고 있는 정인호 형제는 가정에서나 직업에서, 그



정인호 형제 가족.
왼쪽부터 이화선 자매,
정인호 형제, 다희, 우림,
두림.

리고 교회 안에서도 누구보다 열심이 일한다. 그렇다면 정인호 형제가 생각하고 추구하는 시온이란 무엇일까? 정인호 형제의 답은 간단하다. “어디서든, 그 누구든 시온을 세우는 데 일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시온을 세우기 위해서는 특정한 누군가, 혹은 다수의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개개인이 가정에서, 그리고 각 와드에서도 각자의 시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인호 형제는 힘주어 덧붙인다. “가족이 화합하지 않으면 시온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 된 가족들이 그들의 와드에서 감동을 지지하고 부름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시온을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의 눈을 보면서 복음에 대해 간증할 때 가장 행복하다”고 말하는 정인호 형제와 “복음 가운데서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만큼 행복한 건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화선 자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성장하는 귀여운 세 자녀. 단란한 이 다섯 가족은 가정이라는 이름의 ‘시온’에서 오늘도, 행복하다. ■

가정 비축: 은박 주머니를 활용한 올바른 저장법

**가정 비축 센터, 배부 서비스,
ldscatalog.com 통해 구할 수 있는
주머니는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은박 주머니는 여러 겹의 플라스틱과 알루미늄으로 코팅되어 있습니다. 두께는 178미크론(7밀)이고, 식품을 습기와 해충으로부터 막아줍니다.

은박 주머니에는 어떤 종류의 식품을 보관할 수 있습니까?

은박 주머니에는 건조된 식품(수분함량 10% 이하), 상온에서 안전한 식품, 유분 함량이 낮은 식품들을 보관하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있는 식품을 산소를 뺀 용기에 보관하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될 우려가 있습니다.

각 은박 주머니에는 얼마만큼의 식품을 넣을 수 있습니까?

각 은박 주머니는 4리터(1갤런)의 식품을 넣을 수 있습니다. 무게는 식품에 따라 다릅니다. 은박 주머니에는 3.2kg(7파운드)의 밀, 3.1kg(6.8파운드)의 백미, 2.3kg(5파운드)의 탈지분유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은박 주머니를 밀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입니까?

은박 주머니는 전열 포장기를 사용해서 밀봉해야 합니다. (관련 설명 참조) 특히 밀가루 또는 분유 같은 분말로 된 식품들을 밀봉할 때 다리미 또는 다른 열기구들을 사용하면 완전하게 밀봉이 되지

자립을 이루는 여섯 가지 원리들 중 하나는 가정 비축입니다. 과거에는 일년 치의 비축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일상적으로 먹는 음식의 삼 개월 분을 비축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곳에서는 회원들에게 더 장기적인 비축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혜롭게 행해져야 합니다.

쌀, 밀, 콩류 등을 삼 개월이나 일 년 또는 그 이상 장기 저장할 때에는, 저장 방법과 그 장소, 보관 상태 등이 그 음식이 얼마나 잘 저장되느냐에 영향을 미칩니다. 음식을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은박 주머니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은박 주머니는 1990년대에 도입되었고, 이미 많은 스테이크가 밀봉 포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은박 주머니와 산소 흡수제는 배부 센터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 자주 묻는 질문들과 밀봉 포장기 사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하시면 교회 웹사이트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www.lds.or.kr)

않습니다. 복지 서비스에서 사용하는 전열 포장기 (American International Electric AIE 305 A1 및 Mercier ME

305는 다음 조건에 만족합니다: 밀봉가능 넓이 5mm(3/16인치), 305mm(11.9인치) 넓이의 집게, 205미크론(8밀)두께까지 밀봉 가능, 밀봉 집게에 이물질이 있으면 정지시킬 수 있는 안전 스위치.

전열 포장기를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전열 포장기는 대부분의 가정 비축 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많은 스테이크에서도 전열 포장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한다면 전열 포장기를 배부 센터 또는 ldscatalog.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밀봉 후에 은박 주머니의 옆쪽에 주름이 생기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까?

대부분의 제품은 밀봉 후 며칠이 지나면 밀봉된 주머니의 옆쪽에 주름이 생기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은 분말 식품보다는 곡물 식품을 포장할 때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산소 흡수제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Providentliving.org 방문해 참조하십시오.

은박 주머니에 포장한 식품은 어떻게 보관합니까?

은박 주머니에 포장한 식품은 서늘하고, 건조하고, 쥐가 없는 곳에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관하는 주머니는 콘크리트 바닥이나 벽에 직접 닿으면 안 됩니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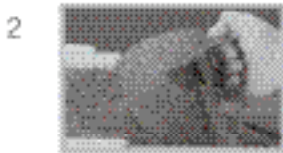
은박 주머니 포장기 설명서



포장기를 130mm 높이에 놓는다.
포장기 세팅

- Action Selector(작동 선택) 스위치는 Manual(수동)에 놓는다.
- Recycle(재생) 다이얼은 2
- Congealing(응결) 다이얼은 6
- Sealing(밀봉) 다이얼은 4에 놓는다.
- 전원을 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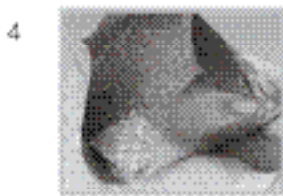
주의: 전원을 켜면 다이얼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한다.



계량 컵을 사용해 은박 주머니를 채운다.



은박 주머니에 식품을 정확히 4리터(1갈런) 채운다.



딱 한 주머니에 산소 흡수 패킷을 넣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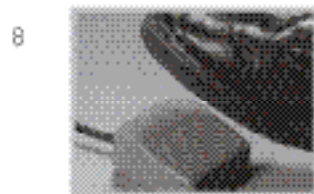
밀봉되는 부분 안쪽을 닦아낸다. (분말 식품을 밀봉할 경우)



주머니의 양쪽을 잡는다.
양쪽으로 튕려서 잡아당겨 주머니 입구가 닫히도록 한다. 주머니의 뒷부분을 접는다.



주머니 위쪽의 끈을 집게의 열린 부분에 넣는다. 위쪽이 밀봉될 수 있도록 주머니를 위치시킨다. 주름이 생기지 않도록 잡아당긴다. 집게 안쪽으로 손가락이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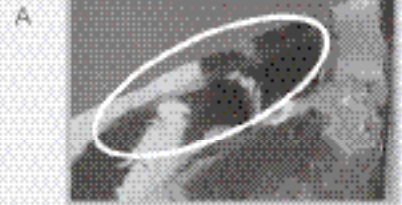


페달 스위치를 밟아 포장기를 작동시킨다. 집게가 닫히면 잡고 있던 손을 놓는다. 포장 과정이 끝나면 주머니를 빼낸다. 밀봉이 제대로 됐는지 검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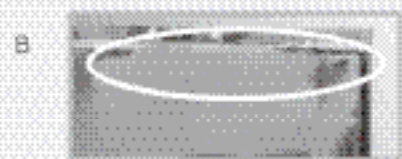


내용물과 포장 난파를 기입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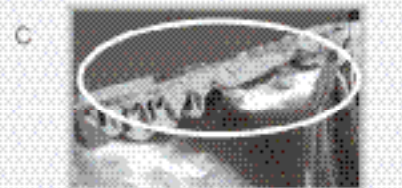
정기 밀봉 검사



올바른 밀봉. 밀봉된 부분은 공중에서 밀봉한 것처럼 보여야 한다.



밀봉하는 시간이 너무 길면 광택이 없어지고 녹을 수 있다. Sealing(밀봉) 다이얼 세팅을 조금만 줄여서 재 밀봉한다.



내용물을 너무 많이 넣지 않는다. 밀봉이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다.



밀봉된 부분을 당겼을 때 떨어지지 않아야 한다. Sealing(밀봉) 다이얼 세팅을 조금만 높여서 재 밀봉한다.



주머니 위를 눌러서 공기나 내용물이 빠져 나오지 않아야 한다.



가장 훌륭한 선택 ...

뉴욕 선교부
배성화 장로

저는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인종과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뉴욕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새로운 지역으로 이동한 후 건물에서 쫓겨나고, 버스에서 잡상인으로 몰리는 등 힘든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이동하고 나서 4주 동안 열심히 노력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시간들이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하나님 아버지께 두 손 모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후, 저희들은 힘을 내서 근처 아파트에 들어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4명의 자녀를 둔 한 부부가 저희들을 반기며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동반자와 저는 온가족이 둘러앉은 가운데 회복된 복음을 가르쳤습니다. 토론을 하는 동안 성신이 함께 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시간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근처 다른 집도 찾아다니기로 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녁 문을 두드렸던 모든 집에서 저희들을 환영했고, 저희는 가족 셋과 한 명의 청년 독신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



었습니다. 선교사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이탈리아인 구도자로부터 한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예전에 선교사를 만났었는데 갑자기 다시 토론을 시작하고 싶어져서 연락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하룻밤 새에 선교부에서 가장 구도자가 많은 행복한 선교사가 되었고, 그 후 지금까지 침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과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남보다 늦은 나이, 미처 끝내지 못한 학업, 그리고 결혼 및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을 뒤로한 채 시작했던 선교 사업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저에게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값진 선교 사업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부모님께 말로는 다 표현 못할 사랑과 감사를 드립니다. ■

2008년 봄, 주님의 사도를 만났던 그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당시 저는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추천서를 쓰는 중이었지만 사실 마음은 복잡한 상태였습니다. 과연 잘한 결정일까, 내가 잘할 수 있을까, 그냥 포기하고 학업에 충실할까 등 갈등과 고민이 많아서 그에 대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전에서 열린 '스코트 장로님과 청년 독신들과의 노변의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애 좋아하던 스코트 장로님을

대전 선교부
이세리 자매



직접 뵈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래서인지 모임 시작부터 영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윽고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그것이 곧 제 기도에 대한 응답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선교 사업을 포기하는 것은 새가 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선교 사업을 통해서 영적으로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제 마음은 평안과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또한 선교 사업을 포기할까 고민했던 제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제 태도는 노변의 모임 이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교 사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게 되었고, 자신감 또한 생겼습니다. 그리고 좀 더 의미 있게 선교 사업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선교부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 부름 받은 지는 이제 6개월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변화하는 것을 보았고,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또한 정말로 많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제가 선교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저는 결코 영적으로 거듭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

부산 선교부
진민용 장로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이모님 가족의 소개로 복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원이 된지는 올해로 5년째가 됩니다. 저에게는 부모님의 반대, 진로 문제, 군대 문제까지 더해져서 선교 사업이라는 것이 큰 도전이자 고민거리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선교 사업에 대한 확신과 간증이 부족했던 제 자신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대학교 2학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평소 소망하던 학군 장교(ROTC) 시험에 응시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바로 선교 사업이었습니다. 학군 장교 임기를 마친 후에 선교 사업을 가려니 웬지 가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휴학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학군 장교 후보생들도 1년 간 휴학이 가능한 제도가 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저는 스스로의 확신



만 있다면 우선적으로 1년이라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저는 학군 장교 시험에 합격했고, 학기말 시험과 곧 있을 동계 훈련 입소를 준비하느라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독님께서 저에게 2년 간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보라고 권유하셨습니다. 뜻밖이었습니다. 이미 모든 것이 결정되었는데 다시 기도를 해 보라니……. 하지만 뜻밖인 일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제게 전화를 하신 이모님은 2년이라는 기간에 대한 선지자의 권고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고, 지금까지의 모든 계획이 주님의 방법과 맞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의논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거듭할수록 “다른 모든 것보다 선교 사업을 우선으로 하라”는 스코트 장로님의 권고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임 선교사로 2년을 봉사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영은 확신으로 가득 찼지만 부모님을 생각하니 마음이 무거운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더욱이 휴학을 위해 학군 장교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었기에 중압감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용기를 내었고, 부모님께 제 간증을 전했습니다. 회원이 아니신 두 분은 군대를 먼저 다녀오길 원하셨지만 제 간증과 소망을 들은 후 결국 제 의견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정말 기뻐합니다.

저는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는 약속이 참된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커다란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



서울 선교부
김가람 장로

누구에게나 인생에서 세 번의 중요한 기회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저에게는 이 선교 사업을 선택한 것이 그 기회 중 하나였다고 확신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녔지만 복음에 대한 간증이 없어서 선교 사업뿐만 아니라 교회에 나가는 것조차 제겐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랬던 저에게 2008년은 제 인생의 행로를 바꿔 놓은 기적의 한 해였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바로 선교 사업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들과 토론에 참석하면서 스스로 복음에 대한 간증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고, 진실한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가르치는 모습과 간증을 통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선교 사업을 준비했던 그 시간 동안 주님의 축복들을 통해 무척 행복했습니다.

선교사가 된 제 자신을 볼 때, 옳은 선택을 하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갖습니다. 그분께서 매일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많은 축복들을 느끼면서 이 사업이 얼마나 위대한 사업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가 가진 행복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하루를 시작합니다. ■

기쁨은 부메랑처럼...

신촌 와드 이선숙 자매

서울 스테이크 신촌 와드의 이선숙 자매는 우연한 기회에 자원 봉사자의 길을 걷게 되었다. 1990년 어느 날 '새마을부녀회'에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자원 봉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부녀회장의 권유를 받은 것이다. 부녀회에서 가장 어렵던 이선숙 자매는 부녀회장의 권유이기도 했거니와 다른 아주머니들과 어울릴 수 있겠다는 생각에 흔쾌히 봉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렇게 18년이 흘렀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식사를 장만해 주고, 미용 기술을 익혀서 노인들의 머리를 깎아주면서 보냈던 지난 세월 동안 이선숙 자매는 깨달은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바로 봉사의 참된 의미이다. "봉사란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원 봉사자들은 사랑이 무척 많은 사람일 줄 알아요. 하지만 자원 봉사자들도 다 똑같습니다. 저는 봉사라는 말 앞에 사랑이라는 거창한 수식어를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봉사란 그저 기쁨입니다. 누군가를 돕게 되면 도움을 받은 사람이 느끼는 기쁨이 제게도 그대로 돌아오더군요. 마치 부메랑처럼 말입니다."

이선숙 자매가 봉사 활동을 하면서 가장 잊지 못할 경험을 한 곳은 정신지체장애인 2000명이 생활하는 '영보자애원'이었다. 그곳에서 이 자매는 다른 봉사자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시상식장에서의 이선숙 자매

진정한 헌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들을 마치 친자식처럼 돌보는 자원 봉사자들의 넉넉한 웃음과 따뜻한 행동은 이선숙 자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다. 사실, 그 당시 이 자매는 여러모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자신이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던 무렵이었다. 그러나 영보자애원에서의 경험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친부모에게 사랑받듯 자원 봉사자들의 품 안에서 즐겁게 뛰어 노는 장애인들을 보면서 행복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었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신 또한 행복한 사람이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다. 그녀는 팔을 걷어붙였다. 자신이 받은 감동과 깨달음을 표현하는 길은 봉사밖에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선숙 자매는 지난 12월 18일 마포구에서 개최하는 '2008 마포자원봉사자의 날' 행사에서 '봉사왕'에 선정

되었다. 봉사왕은 1만 시간 이상을 봉사한 사람에게만 주는 공로상으로 이선숙 자매를 포함해 단 10명만이 이 상을 받았다. 봉사 활동에 시간을 매겨 상을 주는 것 자체가 무척 쑥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는 이 자매는 시상식 내내 몸 둘 바를 몰라 했다. 그녀는 행사가 끝난 후 조심스럽게 소감을 밝혔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봉사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봉사하는 순간만큼은 매우 행복해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그랬는데 어느덧 18년이 지났고, 1만 시간 이상이라고 이렇게 귀한 상도 주셨습니다. 저는 처음 봉사 활동을 시작한 후로 지금까지 한 주라도 봉사 활동을 거르면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잘 지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원 봉사를 하면서 오히려 제가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에 행복합니다. 더 욕심을 낸다면, 어렵고 힘든 분들 모두가 참된 복음 안에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저는 자원 봉사를 통해서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선숙 자매의 봉사는 1만이라는 상징적인 시간을 넘어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녀가 봉사를 시작한 건 우연한 계기 때문이었지만 오랜 세월 봉사를 계속해 온 원동력은 이 복음과 신앙 때문이었다. 봉사야말로 후기 성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선교 사업 중 하나라고 말하는 이선숙 자매. 그녀는 오늘도 기쁨의 부메랑을 던진다. ■

교회 지도자들 김수환 추기경 애도에 동참

지난 2월 16일 천주교 지도자인 김수환 추기경이 선종했다. 많은 사람들이 고(故)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을 애도하는 가운데 교회도 그 애도의 물결에 동참했다. 추도 행렬이 끊이지 않았던 2월 19일 명동 성당을 찾은 최윤환 장로와 지역 칠십인인 이용환 장로, 한국 공보 위원회의 이희승 형제와 공보 선교사인 켄스 장로는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 및 신자들께 “한국 천주교 지도자 및 신자들께”로 시작하는 추도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

생활을 하는 가운데, 타인을 위해 사랑을 보이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이다. 고(故) 김수환 추기경은 바로 이 가치에 충실했던 종교인이었다. 이번 방문은 종교의 다름을 떠나 한 평생을 훌륭히 봉사하다 주님 곁으로 돌아간 종교 지도자에게 보내는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다.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은 “한국 천주교 지도자 및 신자들께”로 시작하는 추도문에서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종에 깊은 애도의 뜻을 표

합니다. 김수환 추기경께서 한국의 민주화와 한국 국민들의 복리를 위해 보여주신 용기 있는 행동들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대표하여 김수환 추기경님의 선한 영향력과 지도력에 깊은 감사를 표하고, 그분의 비이기적인 삶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분을 기리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애도의 뜻을 표했다. ■

나주 지부 헌납식



나주 지부는 2008년 건립을 시작할 때부터 지역의 명소로 소문이 자자했다. 나주 지부 건물이 주변 경관과 어우러지며 차츰 그 형태를 드러냈던 지난 일 년의 공사 기간 동안 지부 회원들은 물론이고 이웃 주민들까지 완성된 모습을 상상하며 한껏 기대에 부풀었다. 2009년 2월 7일 헌납식을 통해서 일반에 공개된 나주 지부는 넓은 부지와 아름다운 건물, 그리고 정돈된 조경까지 더해져 나주 지역의 랜드마크(Landmark: 표지물)로 자리 잡기에 손색이 없어 보였다. 나주 지부의 회원들은 건물 건립이 결정되고 완공되기까지 한 마음으로 주님께 간구를 했다. 새로운 건물 건립의 중요한 요건인

성찬식 참석 수를 늘리기 위해 금식과 기도, 그리고 가정 복음에 매진했다. 특히 2008년에 처음으로 부지를 매입하고도 건축 허가가 나지 않아 3년 간 담보 상태에 빠졌을 때는 모든 회원들이 주님께 매달렸다. 이성남 나주 지부 회장은 “26년 간 염원하던 표준 건물을 갖게 되어 무척 기쁘다”고 소감을 밝힌 뒤,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개척자와 같이 복음을 전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전념해야 할 때라고 여겨집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교회가 완성되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의지하고 최선을 다할 때 주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라고 간증을 전했다. 감리자로 헌납식에 참석한 북아시아 지역 회장단의 최윤환 장로는 헌납의 원리를 강조하며 “헌납이란 헌신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자신의 시간과 재능을 주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전했다. 또한 건물의 아름다움을 칭찬한 뒤 “이 새로운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헌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집회소를 청소하고 관리하는 것입니다”라는 권고의 말씀을 남겼다. ■

새로 건립된 나주 지부 건물은 주변 경관과의 조화로 그 아름다움을 더한다.



- 작은 사랑의 실천 -

마포구청 보행 보조차 전달식

지난 2009년 2월 26일 마포구청에서는 서울 북스테이크가 주관하는 '보행 보조차' 전달식이 있었다. 보행 보조차는 노약자의 이동을 돕는 도구로써, 이날 서울 북스테이크가 전달한 50대는 마포구 내의 거동불편 환자들에게 골고루 전해졌다. 보행 보조차 전달은 교회의 인도주의 프로그램의 일환이었다. 마포구청에서 보행 보조차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서울 북스테이크 회장단은 교회 인도주의 기금 지원 여부를 교회에 타진해 왔으며, 그 후 엄격한 심사 끝에 승인을 얻어 전달이 결정된 것이다. 전달식에 참석한 김영호 부구청장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대신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서울 북스테이크의 손병호 회장과 안경찬 신촌 와드 감독, 그리고 공보 선교사인 젠슨 장로 부부와 복지 선교사인 송평중 장로가 참석했다. 또한 북아시아 지역 복지 책임자인 할버슨 형제가 함께 해 자리를 빛냈다. ■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새로 부름 받은 선교사 국내 8명



강동희 장로
서울 동 스테이크
도봉 와드
부산 선교부



이정현 장로
전주 스테이크
정읍 와드
서울 선교부



서린 장로
홍성 지방부
서산 지부
서울 서 선교부



이찬준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부산 선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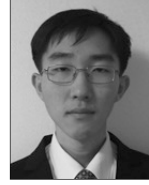
이용하 장로
서울 남 스테이크
봉천 와드
부산 선교부



정민희 자매
대전 스테이크
삼성 와드
부산 선교부



이자현 자매
대전 스테이크
공주 와드
서울 서 선교부



허순행 장로
서울 스테이크
신당 와드
대전 선교부

역원 및 단위 조직 명칭 변경

강서 스테이크

신월 와드 감독: 박창희(전임: 하현수)
화곡 와드 감독: 변만영(전임: 전경일)

인천 스테이크

주안 와드 감독: 김건국(전임: 허정도)

전주 스테이크

익산 와드 명칭 변경: 이리 와드가 익산 와드로 명칭이 변경됨

기사를 모집합니다

가정 방문/가정 복음 교육의 기적

가정 방문이나 가정 복음 교육을 통해서 얻은 간증이나 특별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보내실 때는 A4 용지 반 장 정도의 분량으로 작성해 주시고, 사진과 연락처를 첨부해 주십시오.

보내실 곳

우편: 서울시 성동우체국 사서함 22호 한국 관리 본부 리아호나 담당자 앞 (우편 번호 133-600)

팩스: 02-2235-1395 이메일: aron1979@hanmail.net (전건우) 문의 전화: 02-2232-1441 (내선 번호 564)